

▶ 문화재청-전라문화유산연구원-완주군, 배매산성 발굴조사

백제 최고 전성기 '한성시대' 토성이었다

완주 배매산성이 백제의 최고 전성기였던 한성백제 시대 토성으로 확인됐다.

7일 완주군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가 주관해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영민)이 완주 배매산성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주 배매산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말기에 축조된 토축산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호남지역에서는 한성도읍기 백제 산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주 배매산성은 백제 한성도읍기 말기에 축조된 호남지역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번 조사는 산성의 서쪽 성벽과 성내 지역 평탄지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둘레 약 280m, 너비 약 15m, 높이 최대 3m정도의 성벽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또 성벽과 성내 지역의 건물지 등에서는 백제 한성도읍기 말기의 고배, 삼족토기, 장란형토기 등 토기류와 철부(鐵釜, 쇠도끼)가 출토됐다.

성벽은 삭토기법을 사용해 토사(土沙, 흙과 모래)와 채석(碎石, 부순돌)을 층층히 쌓으면서 축조됐고, 성벽 최하층에서는 성벽을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는 목주공(木柱孔, 나무못자리)이 확인돼 성벽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남지역 최초 사례
성벽, 삭토기법 사용해
토사 층층히 쌓으면서 축조
성내 평탄지에선
배수시설 등이 확인돼



완주 배매산성 전경



배매산성에 출토된 유물

무기동구멍)이 확인돼 성벽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성내 평탄지에서는 배수시설, 석축열, 건물지 및 배연시설 등이 확인돼 배매산성이 성벽 축조 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배매산성은 그간 전북지역 백제 성곽 가운데 축조시기가 비교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왔다.

지난 2000년 발굴조사 당시 목책열, 집수시설, 건물지, 수혈유구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됐지만 산성의 축조 시기와 기법 등을 알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조사를 통해 학계는 완주 배매산성이 호남지역 한성도읍기 백제 산성의 축조기법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으로 한성도읍기 백제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에는 배매산성 외에도 구역리산성, 읍내리산성, 이진리산성, 용계산성 등 백제 시기에 축조된 산성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이는 완주군이 백제 한성도읍기에 지방지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완주군은 향후 관내 고대문화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중요유적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매산성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주요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완주군에 산재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들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창작예술학교 AA' 내달부터 운영

예술전공과 상관없이 창의적인 능력과 미학적인 가치관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내안예술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과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공동으로 예술가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작예술학교 AA(Art Adapter)'를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신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동시대의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제도권 미술의 경계 넘기를 시도한다.

'창작예술학교 비닐하우스 AA'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미술사가, 이론가, 큐레이터, 비평가와 참가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의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예술에 대한 사고, 미술사에 대한 비평적 관점과 동시대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토론식 수업부터 이미지 리터러시, 비물질과 오픈스스, 사진매체에 대한 워크숍, 전시 읽기와 쓰기 수업 등 정규 과정과 공개 세미나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재단은 참가자 20명(국내 18명 및 해외 2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4일까지며 홈페이지(www.jxt.or.kr)에서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메일(palboka.a@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김미경 '수목풍경을 담다' 전

고향과도 같은 이상 세계 그리다

전북의 풍광을 화폭에 담은 김미경 작가가 '수목풍경을 담다'로 개인전을 갖는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자만동 벽화마을은 김 작가의 작업실이 위치한 곳. 그의 작품에는 작업실 주변의 소박한 일상과 자연이 이야기거리로 등장하기 일쑤다.

겹겹이 보이는 산들과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 화사한 꽃나무와 소나무 산천이 내려다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장소들을 작가는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이상적인 안식처로 환원한다. 작품은 흡사 고향의 실경을 보는 듯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전시는 오는 9~14일 전북도립미술관 서

울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가장 가고 싶은 곳, 무엇 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이상 세계를 화폭에 담았다"고 말한다.

작가는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흐르는 강물처럼(전북도립미술관), 아름다운 전북전(전북도립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동이전-전북테마기획전(전북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한국 화미래지향전(김제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김미경 작 '자작나무라, 부를 때'

의왕국제페라카아트프, 표현과도색전(전북예술회관, 전북도청 기획전시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미술대전 한국 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그림자로 떠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12일 무대

클래식 선율과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화려한 빛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자극 공연이 열린다.

익산예술의전당은 '그림자로 떠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를 12일 오후 3시 무대에 올린다.

스토리텔링 연주회로 펼쳐지는 공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이자 바로

크 시대 음악의 걸작인 비발디의 '사계'를 트리나 폴러스의 명작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에 녹여낸다.

그림자극의 내용은 작가 트리나 폴러스의 작품 '꽃들에게 희망을'을 각색한 것으로, 계절의 추이에 따른 애벌레들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우정과 사랑을 통해 삶의 철학적인 교훈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알

기 쉽게 풀어낸다. 무대에는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와 극단 '열'이 출연한다.

공연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귀로 듣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연은 전석 1만원, 24개월 이상 관람가. /정해은 기자

안도 시인, 문학평론가 등단

안도 시인 겸 아동문화작가가 계간 문예지 '표현' 여름호에서 평론 '운동주 동시의 형태론적 분석과 동심론'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안 시인은 평론에서 '운동주 시인은 동시를 통하여 일제강점기하에서 민족적 슬픔을 달래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운동주가 1934년부터 3년간 오로지 동시만을 썼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연희전문에 입학하기 전까지 동시를 더 많이 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간 운동주의 시 '서시' '십자가' '별 해는 밤' '자화상' '참회록' 등을 비롯해 그의 생애를 다룬 평전 및 작품론, 그리고 유일한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운동주가 동시를 썼다는 사실은 물론 그의 동시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주 시인이 남긴 시 작품 119편을 살펴보면 시(74편)·산문시(8편)·동시(37편)이며, 그중 30%에 이르는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 없고 토속적인 느낌이 난다"고 설명했다.

오하근·전일환·소재호 심사위원들은 "운동주의 동시에 대한 천착이 시도 되지 않은 무렵, 인간의 가장 순수의 영역에 접근한 그의 동시를 명쾌하게 분석하고 문향을 선양했다"고 평가했다. /정해은 기자



www.namwon.go.kr

광안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